

● 남부발전, 하동화력 7호기 상업운전 개시

한국남부발전(주)(사장 남호기)은 하동화력 7호기에 대해 최종 사용전 검사인 부하운전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12월 28일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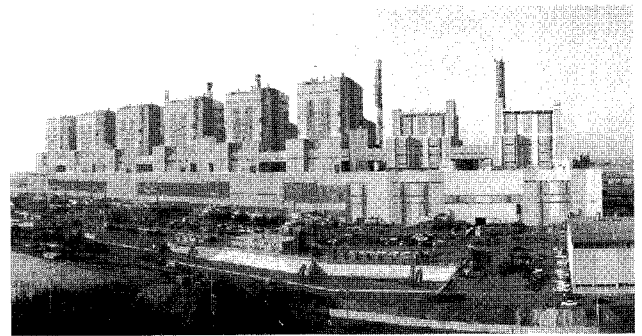
이로써 국내 최초 아일랜드 EPC(설계, 기자재, 시공/시운전) 턴키사업으로 추진된 하동화력 7호기는 지난 '05년 11월 22일 착공 이후 38개월만에 상업운전을 개시함으로써 2009년 이후 남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총 공사비 1조 1,178억원을 투자하여 50만kW 2기를 건설하는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사업은 국내 플랜트업계의 "해외수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발전소 건설에 국내 최초로 아일랜드 턴키방식을 도입한 사업으로 한국전력기술(주)이 기술지원용역을 담당하고 두산중공업(주), 삼성물산(주), 한화건설(주), 한진중공업 등이 구역별로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을 일괄 수행하고 있다.

※ 아일랜드 턴키 방식이란 설계, 기자재, 시공 및 시운전 업무를 일괄 계약하여 건설하는 방식으로 하동화력 7,8호기는 보일러, 터빈, 야드 3개의 아일랜드로 구분.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사업은 건설기간 중 연간 200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8호기가 2009년 6월 준공되면 하동화력본

부는 총 설비용량 400만 kW 대형 발전단지로서 최고의 신뢰도와 고효율을 자랑하는 '세계 발전회사의 모델 발전소'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 된다.



● **한전KDN, IT 혁신 통해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한전KDN은 '2008년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에서 국가정책 IT 기술 융합에 따른 신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한전KDN은 국내 최고의 전력IT 전문기업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 전도봉 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정부로부터 전력IT 분야에 있어 한전KDN의 기술력과 향후 연구개발에 따르는 역할을 십분 인정받은 점이 의미가 있다"며 전력IT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전KDN은 국가 전력IT 연구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한국형 에너지관리시스템, 디지털 변전소, 송전 및 배전계통에 대한 IT 기술 접목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이 공기업 고객만족도 10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데 출중한 역할을 한 것이 두드러지는 점이다. 한전의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지점 운영, 고객 콜 센터 등을 통해 1,700만 고객의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왔다.

현재는, 전력계통에 대한 IT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테러와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경제부 사이버 안전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의 중요 행위인 전자문서에 대한 보관 사업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서 보듯이 한전KDN은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력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대중, 단일공장 세계최대 변압기 생산체제 구축**

- 年 3만MVA 변압기 공장 준공. 총 10만MVA 생산체제 -
- 단일공장 세계최대, 우리나라 전 발전소 설비용량의 약 1.25배 -
- 2009년 매출 1조원으로 변압기 분야 세계 톱3 도약 목표 -

현대중공업이 최근 연간 생산용량 3만MVA(메가볼트암페어)의 변압기 공장을 준공하며,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10만MVA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10만MVA는 우리나라 전 발전소 설비용량의 약 1.2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공장은 연면적 1만2천100㎡(약 3천650평) 규모로, 진공 건조로와 방진설비, 시험장비 등 최신 설비를 갖추고 최대 전압 400kV급 변압기를 생산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이 공장 준공으로 300kV와 400kV, 500kV, 800kV급 등 전압별 변압기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어, 기존 아시아, 미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물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 시장 등 각 지역의 다양한 변압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80년대 초 미주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세계 70여 개국에 초고압 대용량 변압기를 수출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지난 97년 동유럽 불가리아에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유럽 최대 전력 회사와 10년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러시아, 터키 등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1977년 첫 변압기를 생산을 시작으로 지난 9월 전력변압기 생산누계 50만MVA(우리나라 전 발전소

설비용량의 7배가 넘는 수치)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50% 신장한 5억불 이상의 수출이 예상된다. 2009년에는 변압기에서만 1조원의 매출을 올려 세계 톱3에 진입한다는 목표다.